

서평

독일 통일 30년의 '이행'(移行)과 '전환'

Judith C. Enders, Raj Kollmorgen, Ilko-Sascha Kowalczyk (eds.), *Deutschland ist eins: vieles. Bilanz und Perspektiven von Transformation und Vereinigung*, Campus Frankfurt/M 2021 (『독일은 하나며 여럿. 이행과 통일의 결산과 전망』)

Kerstin Brückweh, Clemens Villinger, Kathrin Zöller, *Die lange Geschichte der 'Wende'. Geschichtswissenschaft im Dialog*, Ch. Links Verlag Berlin 2020 (『'전환'의 긴 역사. 대화 속 역사학』)

이진일 (성균관대)

지난 1990년 이래 통일과 전환의 과정들 속에서 동독인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으며, 그러한 변화는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 여전히 동/서독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가르는 장벽이 존재하는가? 동서독 분단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통일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 하는가? 독일 정부는 2019년 4월 이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평화 혁명과 독일 통일 30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 사회, 경제, 학문, 문화 분야 전문가들 22명에게 지난 30년 동안의 전환과 통일의 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의뢰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최종 보고서가 2020년 12월 연방정부에 제출되었고, 2021년 <독일은 하나며 여럿. 이행과 통일의 결산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두툽한 한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나왔다.¹⁾

총론의 성격을 지닌 첫 장을 제외하면 전체 통일 과정을 1)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정리, 2) 내적 통합이 제기하는 문제들, 3) 통일 이후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4) 동서 분열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들, 5) 일상생활에서의 장기적 변화 등 모두 다섯 분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전환과 통일의 미래를 향한 포괄적인 제안들을 내어 놓는다.

본 연구는 통일을 주제로 지금까지 변화해온 연구 경향과 주된 연구대상들을 정리하면서 다음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 (1989-91): 임시적 단계 - 평화혁명과 통일의 동력에 집중하는 시기.

2단계 (1992-96): 성장과 팽창의 단계 - 통일에 대한 제도적, 인적, 담론적 경로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

3단계 (1997-2000): 정상화와 수확의 단계 - 2000년을 고비로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서독 중심의 연구들이 퇴각하고 통일과 관련된 수많은 특별 연구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종결되는 시기.

4단계 (2001- 대략 2014): 목표 재설정 단계 - 동독 내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이 연구주체의 중심이 되면서 대학 외곽의 연구소와 연구자들로 연구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시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통일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하나의 성공사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초기에 크게 들을 수 있었던 비판의 목소리는 점

1) 서점에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한 Open Access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https://www.campus.de/e-books/wissenschaft/politikwissenschaft/deutschland_ist_eins_vieles-17033.html(2021.11.15 접근)

점 줄어들고 자부심과 성과에 대한 인정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떤 것들이 통일 과정에서 잘못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개혁이 요구되는 서독의 제도들도 무차별적으로 동독으로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독만의 고유성이나 동독의 사회구조에 맞는 적용의 묘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동독인 스스로는 그 평가에서 실재 개선된 사회경제적 상황보다 더 나쁘게 자신들의 상황을 평가할까라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논의 대상이며, 통일된 국가 내 동부지역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는 여전히 예민한 문제이다. 특히 동부 독일의 주민들이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 등으로 대표되는 극우 반민주운동의 지지자로 지목됨으로써 그들에게는 새로운 낙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독인들은 서독과 비견되는 복지와 환경에 대한 기대와 서독인들의 성취력과 유사한 척도를 갖고 통일에 다가갔으나, 전환의 과정에서 기대는 실망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즉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고유의 성정과 안정성의 상실에 직면하자, 인종적 편견과 소수자 배제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보를 통해 그 상실을 보상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연구는 오늘날 구 동독 사회가 보여주는 특별히 높은 극우 포퓰리즘으로의 경도는 - 그들이 비록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 동독인으로서 서독인에 비해 소홀함을 받았다는 집단적 박탈감의 결과이며, 이러한 감정이 다시금 사회 내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상실감을 보상받으려 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금까지 통독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서독 출신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독인들의 시각과 주제 설정, 해석상의 접근법이 지배적이었고, 그 결과 비판적 사회과학의 성과는 풍요했지만 불안정한 시대에 대처하는 동독 내 다양한

대안전략과 긍정적 내러티브들은 공적 담론들 속에 관철되지 못한 채 문혀 버렸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록 정부 기관의 의뢰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이기 는 하지만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식적 역사상을 제공하고자 함도 아니고, 동독인들로 하여금 인위적인 정체성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의 도하지도 않는다. 이들의 통일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다. 절반 이상의 동독민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독일의 '2급 시민'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동독의 부흥과 수입의 증가만으로는 통일의 대책으로서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동서간 화합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동독도 고령화와 도농 격차의 심화, 환경문제와 에너지의 전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등 미래와 연결된 또 다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의 변화의 과정을 자원으로 활용할 제도적인 결집 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제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동독인들의 경험과 이들이 이룩 해 놓은 결과들이 적극 평가되고 실재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연방정부는 작업팀을 구성해 <위원회>가 제안한 미래를 위한 방안들을 현실화시킬 것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21년 6월 <독일 통일과 유럽의 전환을 위한 미래센터>를 2027년까지 옛 동독지역에 설립하기로 결정한다.²⁾ 이 센터는 전시와 문화적 행사를 통해 전환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면서, 시민들

²⁾ 현재 장소를 모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많은 중소 도시들이 제안서를 제출 하였다.

이 모여 지난 통일과 전환의 과정을 함께 토론하는 만남의 장소로, 또한 전환의 역사와 미래를 학문적으로 논의할 국제적 연구센터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운용될 계획이다.

위 연구가 방법론적이고 연구사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보는, 보다 이론적 시도였다면, 이와 달리 포츠담 소재 라이프니츠 현대사연구소 소속의 일련의 젊은 역사가들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직접 필드로 들어가 동독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독인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포괄적 체제교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오고 극복했는가 라는 문제에 천착한다.

이들 연구진이 연구 개시에 앞서 세운 핵심 목표는 셋이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를 아카데미라는 울타리를 넘어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소통 형식을 시험하는 것. 두 번째, 역사가들이 해석에 이르는 방법과 그렇게 얻은 결과를 토론에 부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대화여행을 통해 실천하고 제공하는 것. 세 번째, 1989/90년 '전환'의 긴 역사가 오늘날 이야기되고 기억되는 패턴을 탐구하고 세분화함으로써 현재적 논의를 객관화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이들 연구진은 통일과 전환의 과정을 1) 소비, 2)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 3) 지역 정치에의 참여, 4) 주거와 보상, 소유권의 문제 등 네 분야에 집중해 분석하고 있다. 즉 특정 지역과 그 주민들이 어떻게 포괄적인 체제교체를 체험하며, 이를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례연구이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역사적 접근과 다른 구성을 갖는 실험적 성격의 연구서이다. 이들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먼저 통일과 전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동독인들의 멘탈리티가 사회주의 체제 이전, 즉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상 속에 전해 내려온 심성의 역사적 성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나, 서독의 새 상품들과 맞닥뜨렸을 때 동독 주민이 보여준 소비 패턴,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적과 성과를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뒤에는 지난 45년간 추구해 왔던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시도 이전에 이미 빌헬름 제국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독일인 고유의 전통적 멘탈리티가 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가설 아래, 통일 이전 시기부터 통일의 핵심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들을 직접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검증한다. 이들은 생애사적 스토리 이외에도 작센 장기연구³⁾의 자료들을 이용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의 과정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대부분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료들이 적어도 30년이라는 열람 제한에 걸려있는 현실을 우회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전환의 시간을 겪어온 이들의 주관적 반응을 통해 보다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들 연구진은 동독이 “서구”에서는 서구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동구”에서는 동구로 인정받지 못했던 샌드위치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색 중 하나는, 이러한 테제의 검증 방식으로서 인터뷰를 통한 구술사적 방식 이외에도 소위 ‘서면대화’(Schriftgespräch)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연구진은 동독 내 크고 작은 네 도시(마이닝엔, 가레이, 클라인마흐노프, 라이프치히)를 선택해 이곳 주민들과 미리 준비된 의도나 방향 없이 대화를 진행했고, 참가자들에게 통일의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배포하고 작성된 답변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이들을 사료 삼아 작성된 연구의 중간 성과를 ‘서면대화’를 작성한 이들에게 다시 보여줌으로써 피드백과 함께 인터뷰이들로

3) Sächsische Längsschnittstudie: 1987년 당시 칼-마르크스(Karl-Marx)시와 라이프치히 청소년 중앙연구소가 시작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의 장기패널연구.

부터 새로운 문제의식을 유도해 내고자 시도한다. 중간 보고서에 압축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그들의 반응은, 원래 자신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실망에서부터, 인터뷰 내용이 텍스트 속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견해, 자신들의 마음을 적절히 대변해 줌에 대한 감사,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상세히 서술하는 시도까지 다양했다.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자기 성찰적 회상의 시간을 갖고 이를 글로 표현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들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연구자들은 상호주관적인 인식에 다다를 수 있었다. 또 다른 이 책만의 시도는 연구 성과를 익숙한 논문 형식이 아니라 다루는 주제들을 연구 참가자들간의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자유롭지만 물론 미리 기획된 구성을 통해) 하나씩 깊어가며 전개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 대화형식을 통해 서로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집중했던 주제와 다른 동료 연구자의 주제들이 통일과 그 전후 과정에서 어떻게 다르게 혹은 유사하게 전개되는지를 비교, 확인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자 시도한다.

이들의 연구여행에는 한 사람의 저널리스트와 한 사람의 사진작가가 동행한다. 그들은 이들 연구진과는 한 발 떨어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를 모두 관찰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중개하고자 시도한다. 저널리스트는 네 곳의 도시와 대화행사를 동행해 르포형식의 글을 첨부하였고, 사진작가는 60여 장이 넘는 동독 일상에 관한 사진들을 전면으로 장식한다. 그 사진들은 전혀 따듯하지 않고 황량하기까지 하다. 연구진들이 글과 행사를 통해 동과 서를 서로 연결시키고자 시도했다면, 이 사진들은 오히려 그들 간의 경계와 빈 공간, 그림자를 드러내고자 의도한 듯 하다. 그래서 책 전체의 구성을 따라 다 읽고 나면 현장을 경험했던 이들의 증언과 연구진의 의도, 동행했던 저널리스트와 사진작가 간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간격들이 분명해진다. 궁극적으로 이는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현

장에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진들의 계산된 의도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본 연구는 연구자가 동독 출신이라면 동독 연구에 더 유리할까? 1989/90년 당시의 기억과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구술사적 연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들은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술사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녹취된 자료를 연구자가 자료로서 해석하고 응용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어깨너머 배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시간과 과정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 ‘Friedliche Revolution’(평화혁명)? ‘Wende’(전환)? ‘Transformation’(이행/移行)? ‘Umbruch’(변혁)? ‘Systemwechsel’(체제변환)? ‘Zäsur’(전환기)?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도 딱 떨어지는 표현이란 있을 수 없지만, 독일어 표현이라 해도 글의 맥락과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한두 단어로 상징성 있게 축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첫 번째 연구보고서가, 보다 정치/사회적 맥락이 강조된 사회과학적 용어인 ‘Transformation’(이행/移行)이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선택했다면, 포츠담 연구자들은 일상생활사 연구자답게 ‘Wende’(전환)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이행’이 “사회적인 것의 집중적 유동화”(intensive Verflüssigung des Sozialen)를 의미한다면, ‘전환’은 1989년 이전과 이후를 연결시키면서 1989년 가을 이후 동독인들의 근본적 변화를 가장 포괄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체제변환과 생활세계의 변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포츠담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전환’이란 동서독 간의 정치적 통일과 함께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 끝나지도 않은 어떤 것이다. 그 많은 뿌리들이 1989년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행위자들의 시각에서 ‘전환’이란 거리 점령, 사회주의통일당(SED) 권력의 탈취, 자신들만의 정치형식의 정착,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것들로 특징지어지는, 자신들이 스스로

성취해낸 것들의 결과로서의 평화혁명을 의미한다.” 또한 이 단어는 사회적 변혁과 경험들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일찌감치 동독인들의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것은 사회 모든 부분들에서 충격을 초래했던 것인데, 이들 연구자들은 전환기의 가장 분명한 특성을 ‘불확실성의 동시성’ (Gleichzeitigkeit der Unsicherheiten)이라고 이름 붙인다.

2020년 가을, 독일 통일 서른 해를 맞으면서, 지난 30년의 변환 과정을 돌아보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지금도 속속 출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Ilko-Sascha Kowalczyk, *Die Übernahme. Wie Ostdeutschland Teil der Bundesrepublik wurde*, München 2019 혹은 Ilko-Sascha Kowalczyk, Frank Ebert, Holger Kulick (eds.), *(Ost)Deutschlands Weg. 1989 bis 2021 - 80 Studien und Essays zur Lage des Landes*, 1/2, Berlin 2021 등이 있다.) 동시에 방법론상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담론들이 경쟁한다. 공통적으로 이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는 - 물론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독일 통일은 종료되었지만 - 지속적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독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유럽과 글로벌한 세계정책의 차원에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강조점은 비슷한 시기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난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동독에서의 전환의 경험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문이 기존의 주류적 연구들을 의심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들 연구는 기존의 지식들을 흔들고 그 안정성에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이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연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진일(Lee, Jinil)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독일 현대사로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헬가 그레빙의 『독일노동운동사』(2020)를 번역한바 있으며, 지정학적 사고에 기반한 독일 보수주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